



구술자료 상세목록 (구술개요 포함)

사업명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사업개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동 일대는 염전-공업지대-주거지대로의 변화하는 큰 변화가 진행된 지역임. 이 중 1960-1990년대에 거주 및 근무한 동양제철화학 노동자 및 관리자, 인근 공장의 관계자, 지역주민, 소상공인, 관련 지역사회 인물 등으로부터 인근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증언을 듣고 기록하고자 함.					
구술자명	김성목	성 별	남	출생연도	1959년	
면담자	이혜숙	소 속	시민기록단	감독자		
면담장소	학산문화원 3층 동아리실		면담지원			
면담 일시	2025년 10월 30일		회 차	2	시 간	1시간 17분 55초
자료번호						
구술 개요	학익동에서 시멘트 벽돌공장으로 시작하여 주택 200만호 공급시기에 맞춰 강원레미콘으로 변경 후 인천에 건설 사업에 참여하며 지금에 이르러 인근 회사들은 학익동을 떠나고 인근 주민들과의 민원에 대처하고 있다.					
주요 색인어	학익동, 벽돌, 시멘트, 레미콘, 펌프차, 청소, 노동자, 아파트, 민원, 집, 미래, 모래, 물, 재활용, 전기, 건설회사, 동양화학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근황				00:00:37		
- 출생과 인터뷰 참여 이유				~00:00:40		
2. 강원레미콘의 설립과 발전				00:02:40		
- 1986년 강원 콘크리트로 학익동에서 시작되다.				~00:08:23		
3. 강원레미콘 인근 마을 모습				00:08:23		
- 시멘트를 이용하여 벽돌을 생산하다, 지금의 콘크리트 회사로 변모하여 인천에 여러 건축에 참여하다.				~00:12:11		
4. 요즘 직원들에 대하여				00:12:11		
- 사무직 직원들은 가끔 바뀌나 믹서차량 직원들은 전원 한국인으로 유지중				~00:15:00		
5. 콘크리트, 믹서차, 펌프차 이야기				00:15:00		
- 여러 종류의 콘크리트 믹서차량과 현장 펌프차 이야기				~00:26:42		
6. 주민과의 갈등				00:26:42		
- 인근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지의 주민 민원으로 여러 고민 중				~00:30:27		
7. 레미콘 기사와 회사의 공존				00:30:27		



- 회사는 일거리를 수주하고 레미콘 기사는 운반하고 차량 관리에 힘씀		~00:43:36	
8. 주변 변화에 대한 생각		00:43:36	
- 창업 초기 준비했던 공장들이 하나 둘씩 이전하고 몇 남지 않은 회사들은 각종 민원에 노출되어 있음		~00:48:50	
9. 기술 개발에 관하여		00:48:50	
- 계절에 맞는 콘크리트나 건설 형태에 맞는 여러 콘크리트 이야기		~00:58:54	
10. 건설업의 미래와 강원레미콘의 미래이야기		00:58:54	
- 변화하는 학익동과 인천의 미래, 강원 레미콘의 향후 이야기		~01:17:55	
공개여부	☐ 전체 공개 ☐ 전체 비공개 ☐ 부분 공개		
활용동의	☐ 동의함 ☐ 동의 안 함 ☐ 조건부 동의		
특이사항	문화원 이사님으로 인터뷰에 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